

긴급알림!

東京都補助金2012年度予算削除하는 움직임!!

각급 학교와 동포학부모들의 오랜 要請活動의 결과 東京都는 1995 년도부터 都内の 外国人学校를 대상으로 「私立外国人学校運営費補助事業」을 実施해왔습니다.

2009 년도도 補助制度의 要件을 갖추고있는 27 校의 外国人学校에 학생 1 人당 약 15,000 円의 보조금이 나왔으며 朝鮮学校 10 校에도 2, 357 万円이 支給되었습니다.

이 補助制度 創設이후 우리 학교는 매해 申請書와 実績報告書등 必要書類를 갖추고 学校運營狀況을 東京都에 보고하였으며 東京都도 그를 適正하다고 인정하여 15 년간 해마다 補助金을 支給해왔습니다.

朝鮮学校에 대한 東京都의 보조금은 일본의 私立学校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기는 하나 国庫補助에서 제외되는 차별적인 대우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학교의 교육조건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修学上の 經濟的負擔을 輕減시키는데 일정한 役割을 놀아왔습니다.

그런데 東京都는 2010 년도부터 朝鮮学校에 대해서만 執行을 保留하고있습니다.

작년 12 월에는 都知事が <教育内容이 反日的이다> <拉致問題의 進展을 위해 온갖 手段을 行使하여 压力을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朝鮮学校에 대한 實態를 철저히 調査>한다고 公言함으로써 12 월말부터는 이른바 <調査>를 시작하였습니다.

<調査>가 갖 시작한 現在 朝鮮学校에 대한 몫을 削除한 2012 년도 予算案이 都議會에 提出되려고 하고있습니다.

補助金支給을 둘러싼 狀況은 매우 深刻하면서도 決定的인 段階에 들어섰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은 조선학교에 대한 偏見과 政治的意圖에서 출발한것으로서 補助制度의 目的과 趣旨에도 어긋나며 새로운 差別을 낳게 하는 매우 不当한것입니다.

이 緊急狀況속에서 都議會議員들과 東京都知事를 대상으로 한 要請活動을 벌러나가며 한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意思를 반영하기 위하여 급히 署名을 모으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들께서 합심해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2 年 2 月

도쿄조선제 1 유초급학교